

## 열띤 호응 속에 열린 '대학 학자금 정보 관련 세미나'

지난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콘보이에 위치한 열방교회에서 '대학 학자금 정보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리차드 명(AGM College Planning 대표이자 한국일보 학자금 재정컨설팅 자문 담당) 씨는 미국 대학의 학자금보조정책과 대학별 학자금 무상보조금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별로 합격 주요 요소를 비교 분석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공전략과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강의 뒤에는 열방교회를 가득 채운 학부모들의 질문이 쇄도하여, 이번 세미나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아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 꼭 알아야 하지만 알 길이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직 한인 학부모회 회원이 아니었던 세미나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한인학부모회에 가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샌디에고 속 아시아, 아시아 속 한국의 축제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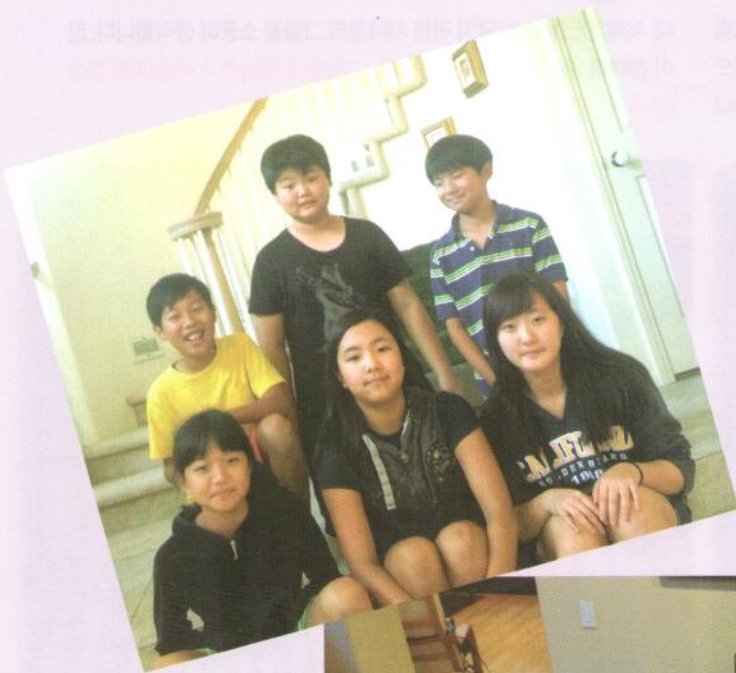


지난 9월 27일 토요일 발보아 파크의 International Cottages에서 열린 Taste of Asia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집 House of Korea' (회장 황정주)은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재미있는 활동, 비빔밥을 선사하였습니다. 부채와 목공예 채색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와 먹거리를 제공한 '한국의 집' 인기는 단연 높았습니다. 한국의 집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인학부모회는 행사에 필요한 고등학생 자원봉사 다섯 명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은 액티비티에 참여한 미국인들을 돕고 비빔밥을 판매하는 등 행사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공연 중간에 여름방학 4주 동안 '한국의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고등학생 최세림 양과 강서현 양의 인증서 Certificate 시상식과 수상소감연설 speech가 있었고,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자원봉사자 고등학생 다섯 명 모두 자원봉사시간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한인학부모회와 함께 한 '한국의 집' 행사는 미국인과 샌디에고 거주 한국인들이 어우러진 신나는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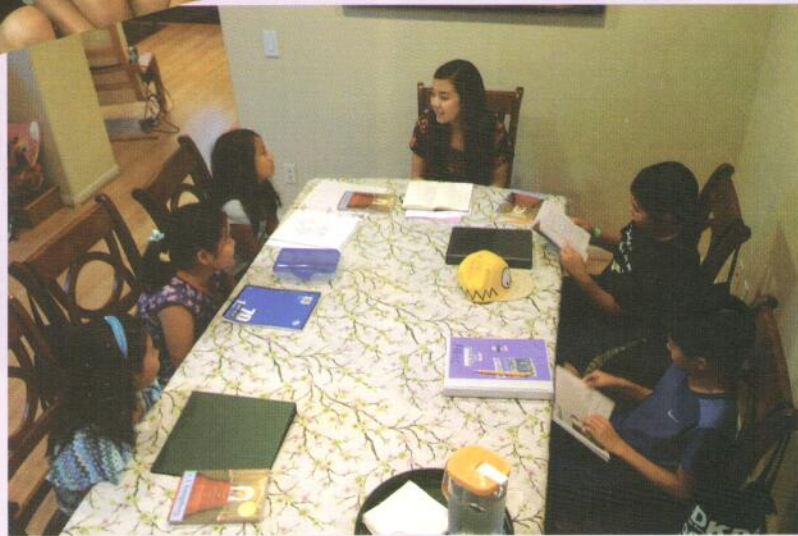


## 눈도롭게 햇살을 내딛은 제1기 'SDKPA 북클럽'



샌디에고 한인학부모회(이하 한인학부모회)의 2014년 최대 교육사업이자 핵심사업인 샌디에고 한인학생 독서 모임 'SDKPA 북클럽' 1기가 정식으로 지난 9월 카멜 밸리, 4s 랜치, 출라비스타 지역 세 곳에서 출범하여 학년 별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SDKPA 북클럽'은 책을 사랑하는 9-12학년 리더들이 이끄는 4-6명 학생(2학년~8학년)으로 구성된 독서모임으로, 학부모회는 회원들에게 책가방을 지원하고 매달 도서를 대여하는 등 북클럽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DKPA 북클럽' 2기 모집은 대상 지역을 확장하여 2015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샌디에고 한인학부모회에 가입하면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샌디에고 한인 학부모회 회원 가입 안내

학부모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아주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북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 관련 정보와 세미나 또는 이벤트 소식, 뉴스레터 등을 SDKPA 페이스북과 메일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새로 오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샌디에고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비는 없으며, 학부모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DKPA](http://www.facebook.com/SDKPA)

+ 이메일 [SDKoreanParents@gmail.com](mailto:SDKoreanParents@gmail.com)

+ 전화번호 619-616-0560(회장 이정희)



정리 | 학부모통신원 이해원, 윤여림